

## ‘KFA 특별 공헌상’ 故 장덕진 축구협회 회장을 아십니까?



대한축구협회(KFA)는 19일 '2017 KFA 시상식'에서 장덕진 전 대한축구협회장에게 공헌상을 수여했다. 장 회장은 4월에 세상을 떠났다. 1977년 7월 메르데카대회에서 우승한 뒤 한국대표팀 선수들과 함께 카퍼레이드에 나선 고(故) 장덕진(사진 왼쪽) 회장의 모습.

## 한국축구 토양 바꾼 ‘영원한 Mr.사커’



최현길 전문기자의 스포츠 에세이

## 장덕진 회장을 다시보다

1969년 재무이사때 은행축구팀 창단 1970년 협회장 추대, 13개팀 탄생 일조 컵대회·어린이축구 장려에도 앞장서

대한축구협회(KFA)는 19일 열린 '2017 KFA 시상식'에서 특별한 분에게 공헌상을 수여했다. 주인공은 지난 4월 세상을 떠난 고(故) 장덕진 회장이다(향년 83세). 그는 1970년대 초반 축구협회장을 맡아 한국 축구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장 회장을 아는 축구인들은 “엄청난 열정을 가지신 분”이라고 기억한다.

축구협회가 발간한 '한국축구 100년사'에 장 회장을 소개한 첫 문단은 이렇다. '1968년 재무부 이 재국에는 축구 붐이 일었다. 사법, 행정, 외무고시 3과에 합격한 소장 관료의 선두주자로 나선 장덕진 국장이 부임하면서부터다. 장 국장이 축구를 장려하면서 축구에 대한 열기가 일어난 것이다. 축구경기를 통해 이재국은 단결하고 업무추진능률은 무섭게 상승했다.'

천재 소리를 들던 그는 고려대학교 재학 시절 축구부원들의 훈련 모습을 보면서 축구의 매력에 빠진 것으로 전해진다.

그가 축구협회와 인연을 맺은 건 1969년 재무 이사에 위촉되면서부터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실업축구팀 창단이었다. 당시만 해도 제일모직, 대



故 장덕진

것이다. 1970년 1월 대한축구협회장에 추대된 그는 금융권 축구팀 창단에 속도를 붙여 총 13개팀을 탄생시켰다. 당시 은행팀에서 선수로 뛰었던 원로들은 “장덕진 회장이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들을 다 먹여 살린 것이다”라고 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1970년 4월 30일자), 1억원 기금 마련과 합리적인 협회 운영, 축구인의 집 개설, 국내 스포츠 사상 첫 축구선수 보험가입, 지방 축구 육성을 위한 기금 지원, 전문지 발간 등을 장 회장 취임 100일의 성과로 꼽았다. 축구장 건립 등 공약이 추진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장 회장이 이룬 성과는 한국축구의 토양을 바꿀 정도로 큰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특히 그가 한 달 만에 마련한 기금 1억원은 당시 남서서울아파트(반포주공아파트) 분양가가 600만원(32평형)인 걸 감안하면 엄청난 액수였는데, 항상 쪼들렸던 축구협회가 비로소 어깨를 편 계기가 됐다.

1970년대 축구팬들을 열광시켰던 국내 첫 국제 축구대회 박스컵도 그의 재임시절 만들어졌다. 그는 동남아시아에서 인기를 끌었던 메르데카컵이나 킹스컵을 능가하는 대회를 만들기 위해 발 벗

고 나섰다. 북한과의 대결을 의식해 대표팀 1진 청룡과 2진 백호로 나눠 선의의 경쟁을 벌이도록 했고, 이후엔 상비군 시스템도 도입했다. 포르투갈의 벤투카, 브라질의 산토스, 플라멩고 같은 유명 클럽팀을 초청해 대표팀과 평가전을 가진 것도 그 무렵이다. 상상도 못했던 대표팀의 장기간 해외전지훈련도 시행했다. 1972년에는 한국과 일본의 정기전도 시작했다.

축구 저변과 축구 붐 조성에도 앞장섰다. 어린 이축구를 장려하기 위해 학교는 물론, 시군구 단위로 어린이축구팀을 만들었다. 전국의 초등학교에 축구공 3만개 보내기 캠페인을 벌여 큰 호응을 얻었다. 1972년에는 지금의 조기축구대회에 해당하는 새마을축구대회를 시도대항전으로 처음 열었다.

장 회장은 3년7개월간의 재임기간 동안 엄청난 일들을 해냈다. 이는 당시의 성숙되지 못했던 축구 환경이나 문화 등을 감안하면 결코 이루기 쉽지 않은 업적이라고 평가할만하다.

축구협회장이자 국회의원이었던 그는 1973년 8월 농수산부 차관에 임명되면서 회장에서 물러났다. 안타까운 건 그가 추진했던 많은 일들이 그의 사임 이후 동력을 잃고 대부분 흐지부지됐다는 점이다. 축구협회는 그의 공적을 높이 평가해 지난 2005년 명예의 전당 헌액자로 추천했지만, 본인이 극구 사양한 것으로 전해진다.

1970년대 한국축구의 패러다임을 바꾼 장 회장의 남다른 축구열정과 추진력은 한 단계 도약을 꿈꾸는 오늘날 한국축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현길 전문기자 choiing2@donga.com

〈신태용 감독〉

## 봤죠? 신 앞에서 골대 때린 석현준

마르세유전 헤딩 골대 위쪽 맞고 튕겨나와 공격포인트 못 올렸지만 인상적인 플레이

석현준(26·트루아AC)은 예상대로 제 기량을 펼쳤다. 그렇다면 이를 곁에서 지켜본 신태용(47) 감독의 머릿속에 무엇이 그려졌을까.

석현준이 신태용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이 직접 관전한 경기에서 자신의 공격능력을 마음껏 뽐냈다. 21일(한국시간) 2017~2018 프랑스 리그앙 마르세유 원정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나와 피치를 누볐다. 동시에 특유의 큰 키를 활용해 위협적인 헤딩슛도 선보였다.

이날 경기는 석현준과 신 감독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신 감독은 유럽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을 직접 보기 위해 19일 비행기에 올랐다. 손흥민(25·토트넘)과 기성용(28·스완지시티), 권창훈(23·디종 FCO), 석현준 등이 관찰대상이었다. 이 중에서도 단연 시선을 모은 이는 역시 석현준이었다. 아직 신태용호 탑승 기록이 없다는 점이 이목을 끌었다.

공교롭게도 신 감독의 첫 유럽 일정도 석현준의 리그 경기였다. 기대와 부담을 동시에 안은 석현준은 주눅 들지 않았다. 때로는 경쾌하게 때로는 저돌적으로 상대 수비를 압박해나갔다. 위협적인 장면도 많았다.



석현준

후반 20분 동료의 왼쪽 크로스를 머리로 연결한 공이 골대를 뚫아갔고, 후반 29분에는 비슷한 상황에서의 헤딩슛이 골대 위쪽을 맞고 튕겨 나갔다. 17일 아미앵전에서 비디오 판독 시스템(VAR)에 의한 득점 무효판결이나 아쉬운 순간이었다.

석현준은 비록 공격 포인트는 올리지 못했지만, 신태용 감독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에는 내용이 충분했다. 또한 이날도 풀타임을 소화하며 소속팀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는 점도 신 감독에게 어필할 수 있었다. 이제 주사위는 신 감독의 손에 쥐여졌다. 앞으로 보름간의 유럽 탐방이 남아있는 신 감독은 과연 귀국 비행기에서도 석현준의 활약상을 떠올릴 수 있을까.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 스완지 또 감독 교체…기성용 또 주전경쟁?

하위권 성적에 4년새 6명 감독 물갈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완지 시티가 감독을 경질했다. 기성용은 또다시 새로운 감독과 호흡을 이루게 됐다. 참 기구한 팔자지만 잘 버티고 있다.

스완지 시티는 21일(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폴 클레멘트 감독과 코치 2명이 동시에 팀을 떠나게 됐다”고 발표했다. 2017년 1월 스완지 시티에 부임한 클레멘트 감독은 1년 만에 지휘봉을 내려놓았다.

클레멘트 감독은 2016~2017 시즌 강등권에 있던 스완지 시티에 부임해 팀을 프리미어리그에 잔류시키면서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2017~2018 시즌은 말랐다. 18경기에서 3승 3무12패를 거둬 승점12에 그쳤고, 스완지 시티는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결국 팀의 성적부진이 경질로 이어졌다.

스완지 시티 휴젠스 회장은 “불가피하게 감독을 교체하게 됐다. 클레멘트 감독이 지난 시즌 이뤄낸 성과는 인정하지만 이번 시즌 팀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더 늦으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차기 감독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자는 방침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스완지 시티는 2014년 2월부터 올해 12월까



기성용

자신의 입지를 지켰지만 주전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다. 2016년 1월 스완지 시티 지휘봉을 잡은 귀돌린 감독 체제에서는 벤치멤버로 밀려나 교체멤버로 뛰었다.

기성용은 신태용호의 주장이자 미드필드의 핵심 자원이기 때문에 스완지 시티의 감독 교체가 더 주목받고 있다. 2018러시아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있어 대표팀의 입장에서는 기성용이 리그에서 꾸준하게 뛰며 일정 수준의 경기력을 유지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돼 좋은 경기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가 소속팀의 감독 교체에도 흔들림이 없을지 궁금하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 결제대행 P.G 서비스

# 카드매출 즉시(3분)입금 서비스 실시!

**Oh my god !!**  
카드를 급자마자 3분만에  
입금된다고?

**Yes !!** 기존 사업자도,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는 소규모  
개인,프리랜서,노점상도 카드를  
받을 수 있어요!!!.

**카드를 급자마자  
3분안에 즉시입금!!!**

PG (payment Gateway)사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 체결 하는 것이 곤란한 중소  
쇼핑몰을 대신해 카드사와 대표 가맹점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결제 및 지불을 대행한 뒤 쇼핑몰에서 수수료  
를 받는 업체를 말한다. - 매경 시사용어 사전 -  
관련법령 :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정의)

**대표전화 1666-0598**  
**결제대행 P.G사업 총판 실로암**

스포츠동아 2017년 12월18일

2017 고객만족 & 대한민국 대표 BRAND 大賞

한 분이 아쉬운 영세업자에게 희소식, 빠른 결제시스템

**실로암**

결제대금 순간 송금서비스를 하는  
실로암(대표 이승기 www.siloom03.co.kr)은 (주)스와이프페이 전국 총  
판으로 현금 자본 흐름의 원활한 송  
금 서비스를 위해 국내 최초로 순간  
송금 3분 입금을 도입 시행하고 있  
다. 스와이프페이서비스란 기존 카  
드결제단말기를 이용하는 카드결제  
승인 대금은 결제 승인 후 3~5일이  
지나 뒤에야 가맹점주의 계좌로 결  
제대금을 입금해주는 방식으로서,  
영역자본이 충분한 소수의 가맹점  
주 외에는 결제대금 입금 주가 3~5  
일 동안의 소액자금이나 물건대금  
등을 결제할 때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결함을 가지

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런칭한 간편결제, 순간  
결제, 즉시결제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순간결  
제 같은 경우에는 카드  
결제 승인 후 3분내로  
가맹점주 계좌로 결제대금이 입금되  
는 국내 유일의 서비스이다. 현재 실  
로암에서는 지역별 영업딜러 모집을  
하고 있다. 출, 퇴근에 상관없이 각  
자 지역세어 영업을 할 수 있다. 이  
는 또 다른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  
에서도 환영받고 있으며, 금융솔루  
션 유통 전문회사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실로암은 앞으로 카드단말기  
사업 외에 추가 상품을 검토 조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표전화 (1666-0598)

**딜러 및 영업사원 모집**